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23년 8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daum.net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8
■ 전화번호 : 02-880-7726

I 권두언: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

신호재(공주대학교)

기록적인 더위가 연일 계속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여름입니다. 처서도 지났지만, 여전히 더위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더위가 머지않은 미래에 소멸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확실히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우리 사회에는 더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일말의 기대감 혹은 희망조차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누가 더 악한가"를 겨루는 듯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강력 범죄들, 물리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궤도를 재설정하게 만드는 사건들, 서로가 서로로부터 분열되며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게 하는 사건들 등. 물론 인간의 본성상 이러한 사건들이 올여름에만 발생하지는 않았겠지만, 유독 올여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억의 깊은 곳에는 동료 교사들의 비극적 선택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교육 체계에서 도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올여름의 기억은 전혀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학설을 지지하든, 혹은 시민 사회 형성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선호하든,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것은 우리는 서로를 생각보다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기저에는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함께 놓여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면, 즉 나는 타인과 함께 (시간의 양이 가지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면, 얼마만큼의 책임을 이야기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오래전 벌린(I. Berlin)이 아름답게 정리한 바 있듯이, 이제 우리는 자유의 경계선에 대해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센(A. Sen)이 자유와 필요충분조건이라고까지 한 바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깊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보다 많은 자유'를 외쳐대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많은 책임'을 외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그어져 있을까요?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책임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그어져야만 할까요? 그 경계선은 행위자로부터의 특정 행위 영역에 대해서만 설정되어야 할까요? 이러할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은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칭찬이나 비난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견 직관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칭찬이나 비난 가능성을 묻는 것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이 그러한 방식으로만 배타적으로 그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보다 실질적인 책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캔론(T. Scanlon)은 주목할 만한 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특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놓이는 것을 피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책임을 묻는 것은 꽤 복잡한 양상을 지니게 합니다.

스캔론이 언급한 예를 들어 봅시다. 약물 사용이나 범죄, 십 대 임신 등의 이슈들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접근은 이것들이 모두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한 비도덕적인 행위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때 대책은 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안적인 접근에서는 이를 가리켜 사회적인 원인이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에서 권장하는 처방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센도 강조했지만, 개인적 책임을 모두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그런 방식으로 되돌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적인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자의 행위 영역을 넘어서 주어진 각자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도 비난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악행들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가져야만 할까요? 영화 조커(Joker)에서 보는 것처럼, 광기 어린 누군가가 탄생하고 그 광기를 지지하며 억눌려 있던 수많은 예비 조커들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어떠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만 할까요? 우리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일 이에 대한 응답이 보잘것없어진다면, 우리가 영화 속 사회와 유사한 사회 속에 놓일 것만 같다는 생각은 단지 과한 상상력의 결과는 아닌 듯 보입니다.

과거이기는 하지만, 콜버그(L. Kohlberg)가 기획하였던 도덕교육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의 누치(L. Nucci) 역시 도덕교육에 있어 사회 정의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도덕적 행위 주체성 담론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명의 도덕적 행위 주체자로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타인과의 협동 체계 안에서 협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도덕교육의 이름으로 전개하든 혹은 인성교육의 이름으로 전개하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도덕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학회의 지난 연차학술대회 대주제 설정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도덕과이며,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행위 주체자로서, 나 자신을 넘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더운 여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회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II 학회 동정

1. 연차학술대회 진행

8월 4일(금) 오전 10시부터 제 34회 연차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대주제인 ‘도덕적 행위 주체성 강화를 위한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80명의 회원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또한 연차 학술대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후원해주신 춘천교대 및 서울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III 회원 동정

○ 본 학회 회장이신 춘천교대 추병완 교수님께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예비교사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10개 대학을 대표하는 총괄 사업단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교·사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되셨습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 본 학회의 중등교육 실천위원회 위원이신 김병연 박사님께서 2023년 8월 28일자로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 본 학회의 교육과정 위원회 위원이신 이인태 박사님께서 2023년 8월 28일자로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Ⅳ 공지 사항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초에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진 : 10만원
※ 납부 계좌 : 국민 206001-04-182088, 예금주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천중학교 홍길동 → 홍길동 봉천중

납부 명단

○ 특별회비: 정창우(20만), 박동준(100만)

○ 연회비(이사 및 임원진): 강민겸(3만), 고정아(3만), 권재은(3만), 김기현(3만), 김남준(10만), 김도건(10만), 김병연(3만), 김상돈(3만), 김아영(3만), 김완수(3만), 김윤경(3만), 김진하(3만), 김철호(3만), 김하민(3만), 노영란(3만), 문일호(3만), 박영주(3만), 박찬석(10만), 박형빈(10만), 배병대(3만), 송선영(10만), 양해성(3만), 손경원(3만), 송선영(10만), 송애리(3만), 신원동(3만), 심한식(5만), 엄국영(3만), 이기연(3만), 이동현(3만), 이인재(3만), 장동익(3만), 정대성(3만), 정탁준(3만), 조주현(10만), 최윤정(3만)

○ 연회비(일반 회원): 강미숙(5만), 고경수(3만), 고동욱(3만), 고미숙(3만), 김석권(3만), 김인의(3만), 김홍태(3만), 양다인(3만), 유다겸(3만), 이경근(3만), 이소연(3만), 정우석(3만), 박상욱(3만), 박서라(3만), 박홍석(3만), 배성제(3만), 서요련(3만), 한지윤(3만), 황명자(3만)

○ 평생회원: 김상범, 김연숙, 김혜진, 박균열, 박동준, 박병기, 서은숙, 신중섭, 양방주, 이경희, 이영문, 이인태, 이인정, 장유정, 정탁준, 최형찬, 허윤회, 황인표

※ 23. 08. 30. 기준

2. 투고 안내

○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의 81호 투고 논문을 모집합니다. 81호의 논문 투고 마감일은 2023년 10월 15일(일)까지입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잼스 시스템(kosmee.jams.kr)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료: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일반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학회지 기준 20쪽을 초과할 경우, 1매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2021.4.28. 개정)